



다문화 사회,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

>> 문 의



(사)한국다문화학회

140-80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202호
TEL: (02) 6325-3145, FAX: (02) 710-9730



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

140-80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202호
TEL: (02) 6325-3145, FAX: (02) 710-9730

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(601호)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(청파동2가)

오
시
는
길



교통편

-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(10분 출구 도보 10분 또는 지선버스 용산 04)
- 지하철 1호선 남영역(도보 15분 또는 지선버스 용산 04)
-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(2번 출구 도보 15분 또는 지선버스 405, 2016, 0018)



다문화 사회,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

| 일시

2014년 9월 19일(금) 13:00~18:00

| 장소

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(601호)

주최: (사)한국다문화학회,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후원: 여성가족부

(사)한국다문화학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와 공동으로 9월 19일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학술대회는 <다문화 사회,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>라는 주제 아래 '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변화'와 '한국의 다문화가족 현실과 정책 방향' 등 세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국가와 함께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와 변화 방향을 고찰해 보고 나아가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취약성과 다문화 가족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.

세계화와 함께 사람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이주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내국인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다문화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한국은 2014년 6월 현재 체류외국인 수가 약 1,700,000명으로 전년대비 11.6%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결혼이주여성도 152,13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듯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증가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 구상 및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은 오랜 이주역사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다른 이주국가에서 이미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넘어서 이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을 담지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.

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의 현재와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다문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.

2014년 9월

(재)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 이은희

(사)한국다문화학회 회장 김영란

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소장 윤광일

프로그램 PROGRAM

13:00-13:30 등록

13:30-14:00

개회사

축사

사 회: 김은실((사)한국다문화학회 연구이사)

김영란((사)한국다문화학회 회장)

윤광일(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소장)

14:00-15:20

세션 1 :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변화

사회: 이진영(인하대학교)

1.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

발표: 신지원(전남대학교)

토론: 박경태(성공회대학교)

2. 한국 다문화 정책의 현실 진단과 전망

발표: 오경석(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)

토론: 이해경(배재대학교)

15:20-15:40

휴식

15:40-17:00

세션 2 :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실과 정책 방향

사회: 정기선(IOM 이민정책연구원)

1.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과 과제

발표: 김혜영(숙명여자대학교)

토론: 고선주(성균관대학교)

2.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폭력 피해

- 취약성과 human security 개념의 재고찰

발표: 황정미(고려대학교)

토론: 이선형(서울여성가족재단)

17:00-17:10

휴식

17:10-17:50

종합토론: 다문화 사회, 다문화 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

사회: 전경옥(숙명여자대학교)

토론: 발표자 및 토론자

차용호(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)

최성지(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)

17:50-18:00

폐회